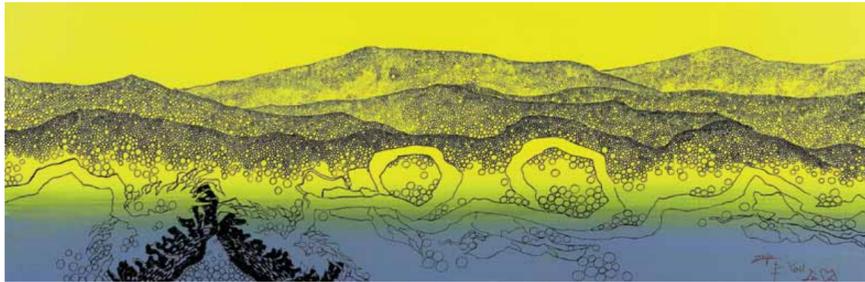


지역작가들 창의적 탐구정신 '만끽'



◀김보미 작 '美완성'

▶박유자 작 '사랑합니다'



광주예총 아시아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1기 입주작가 결과보고전

문화전당 지역예술가 육성 프로그램

내달 19일까지 문화창조원 복합5관

작가 13명 5개월 작업 창작물 보여



최대주 작 'Chaos'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역 예술인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했던 공연 위주 협업 프로그램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 예술계와 손을 잡고 전시를 연다.

오는 28일부터 '2016년 지역예술가 육성사업 레지던시프로그램' 결과물을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3월19일까지 문화창조원 복합5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아시아창작스튜디오 1기 입주작가 13명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개막식은 28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이번 전시는 광주예총(회장 최규철)이 주관한다. 광주예총은 지난 8월부터 아시아창작스튜디오를 위탁 운영하며 레지던시를 비롯해 오픈스튜디오, 지역주민 연계예술교육, 강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입주한 작가들은 약 5개월간 오픈스튜디오와 백련갤러리(예총회관 내)를 통해 간간히 작품을 공개해왔지만 문화전당에서 공식적으로 결과물을 총망라해 전시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시주제는 '이you있는 공존'이다. 기존 결과보고전 형식을 벗어나 장르 간, 작가 간 교류를 통해 실험적 창작활동을 넓혀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전시장은 작가별로 11개 부스를 구성, 회화·공예·조각·서예 등 장르별로 독립적인 공간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참여작가들은 기존 작업보다는 실험적인 내용을 가미한 작품을 출품한다.

성유진 작가는 천경자·이우환 작품 위작 논란과 조영남 대작 사건을 계기로 되돌아 본 예술의 정의에 대해 살펴본다. 프랑수아 파리 오르세미술관에서 따온 'ART ORSAY'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기술과 그림에 담긴 의미 중 무엇이 더 중요

한지 관람객들에게 묻는 작업이다. 출품작 '이것은 아름다운가요'는 위작 논란에 휩싸인 천경자 '미인도'를 작가 시각을 더해 패러디했다.

청년 도예가 김보미씨는 옛것을 본받아 새것을 창조한다는 '빈고장신'을 작품 주제로 삼았다. 장작가마에서 구워낸 '美완성' 작품은 자연스럽게 표현한 굴곡이 눈에 띈다. 물레성형 과정에서의 즉흥적인 조형과 번조(도자기를 굽는 일) 과정에서의 유색 번이를 통해 만들어진 의도치 않는 아름다움을 담았다. 또 고려청자에 자개상감기법을 더한 '진' 작품은 다양하게 시도하는 작가의 실험정신이 엿보인다.

김기범 작가는 회화 형식으로 표현한 조각을 선보인다. '자연으로부터'는 멀리서 보면 마치 병풍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가까이서 살펴보면 알뜰달룩한 사각 조각들이 모자이크 형식으로 나무, 하늘, 산 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최대주 작가의 서양화 'Chaos'는 진리를 탐구하는 작가 정신을 표현했다. 최 작가는 물 속에서 부유하고 있는 여인을 통해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진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형태와 색채에 가치를 부여하는 화가로서의 역할을 넘어서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그밖에 조규철·윤병학·박유자·신호재·김병모(이상 회화), 임춘식(서예) 작가를 비롯해 초대작가 최규철·주라영·김세진씨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한편, 문화전당은 개관 이후 कु비 130여원을 투입, 옛 서구청 건물을 리모델링해 작업실 35개, 게스트 하우스, 전시실, 공연장 등을 갖춘 아시아창작스튜디오를 조성했다. 광주비엔날레 등 국내외 작가들이 머물며 창작 활동을 하고 있으며 광주예총과 산하 협회 사무실도 입주해 있다. 문의 062-528-920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미인도' 26년만에 일반 공개한다

국립현대미술관 4월 전시...천경자 유족측 반발

국립현대미술관이 위작 논란이 계속되는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26년 만에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4월 중순 과천관에서 개막하는 '소장품 전 : 균열'을 통해 천 화백의 '미인도'를 전시할 계획이다. '균열'은 천 화백을 비롯해 20세기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100여 명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다.

강승환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은 "소장품을 공개하는 건 미술관의 의무"라면서 "미인도가 20년 이상 공개되지 않았고 궁금해하는 국민도 많기 때문에 작품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1991년 기획한 '움직이는 미술관'에 '미인도'를 포함한 것이 발단이 됐다. 실물을 직접 확인한 천 화백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며 반발했고 이후 논란은 20년이 넘게 이어졌다.

작품은 지난해 천 화백의 유족이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고소·고발한 사건 수사를 위해 검찰에 보내진 것을 제외하고는 외부에 노출된 적이 없다.

검찰이 작년 12월 이 사건과 관련해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발표했으나 유족



측은 이에 맞서 항고한 상태다.

유족 측은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인도' 일반 공개에 대해 "전시를 강행할 경우 추가 고소하겠다"며 반발했다.

공동 변호인단인 배금자 변호사는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권자로 표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면서 "전시를 할 경우 사자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이와 관련해 "미술관 소장품이기 때문에 미술관 내 전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표기 사항 등 법적 문제도 충분히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지원금 늘어난 문화누리카드 신청하세요

광주문화재단·전남문화관광재단 28일부터 발급

'2017 문화누리카드 신청하세요' 광주문화재단과 전남문화관광재단이 28일부터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문화누리카드는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다.

음반·도서 구입을 비롯해 공연·영화·전시·스포츠 관람, 국내여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철도·항공·고속버스·여객선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체육용품점까지 가맹점이 확대됐다.

특히 올해는 1인당 지원금이 5만원에서 1만원 인상된 6만원으로 늘었다.

신규 발급은 28일~11월30일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3월1일~11월30일까지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총 7개까지 세대당 1개 카드

로 합산해 사용할 수 있으며, 지정된 가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다.

카드 이용기간은 발급일 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환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 참조. 문의 광주 062-670-7912~13, 전남 061-280-5845~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서구 목요일국악한마당 송혜원 '춘향가' 완창 무대

내달 2일 빛고을국악전수관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진행하는 목요일국악한마당이 3월 첫 무대로 판소리 '춘향가' 완창 무대를 마련했다. 3월 2일 오후 5시 빛고을국악전수관. 이날 무대에 서는 이는 소리꾼 송혜원

〈사진〉씨로 동초제 판소리 '춘향가'를 선보인다. 무려 3시간 30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송씨는 초야부터~신연맞이까지를 들려줄 예정이다. 동초제는 너름새가 정교하고 장단이 다양하며 맺고 끊음이 분명한 게 특징이다. 광주예술고와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

과를 졸업한 송씨는 2008년 제16회 임방울국악제 일반부 최우수상, 2012년 제15회 서편제 보성소리 축제 일반부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수상했다. 방성준 선생에게 동초제 춘향가, 적벽가, 흥보가, 심청가, 수궁가를 사사했으며 현재 광주시무형문화제 제16호 동초제 춘



향가 이수자, 전남대 산학협력단 소리문화연구소 연구원, 전문예술법인 (사)국악중심 '연' 상임단원으로 활동중이다.

고수는 제12회 보성소리축제에서 명고부 대상을 수상한 정인성씨가 맡는다. 관람료 무료.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화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